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18일(수)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수 산 과	담 당 자	· 어업지도팀장 이재천 ☎ 440-4861 · 담당자 김 현 ☎ 440-486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연평어장 가을어기 안전조업 대책 마련**  
 - 9.1.~11.30. 인천시 주축 9개 기관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 운영 -  
 -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 철저 등 -  
 - 시, 우리 어선들이 안전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 다할 것 -

인천시가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기간(9.1.~11.30.)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3일 서해어업관리단,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연평어장 우리어선의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무선통신의 무휴청취를 가능케해 어선의 피랍·피습을 방지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고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연평 어업인들의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개시일인 9월 1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돛)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지역적 특성상 서해 접경지역(NLL)과 인접된 곳으로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서해어업관리단, 옹진군, 군부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수협 등의 협조로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인천시를 주축으로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꽃게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어업인들을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 해군, 해경,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평어장 주변에 침적된 폐어구 수거작업을 지난 8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을어기 조업시작 전 8월 2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을

어기에는 꽃게 어획량이 증가되기를 바라며, 연평어장 중심으로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에 대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사진자료〉

